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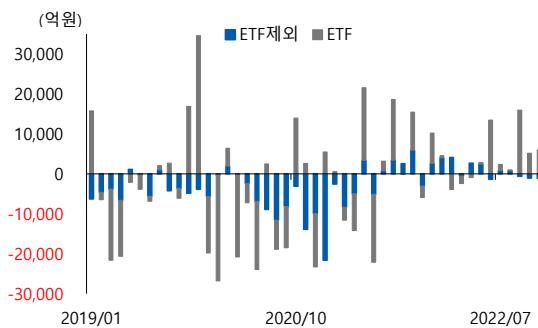


연말 펀드시장 분위기

1. 국내주식 ETF로 자금 유입

- 지난 3개월간 국내인덱스주식(ETF포함)과 해외주식형펀드(ETF포함)로는 투자가 이어짐.
- 단기채권펀드를 중심으로 환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종합채권 유형의 펀드는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음.
- 대부분의 주식 유형이 최근 3개월간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유럽주식펀드·소재섹터 등은 양호한 성과 기록.

국내주식ETF로의 자금 유입은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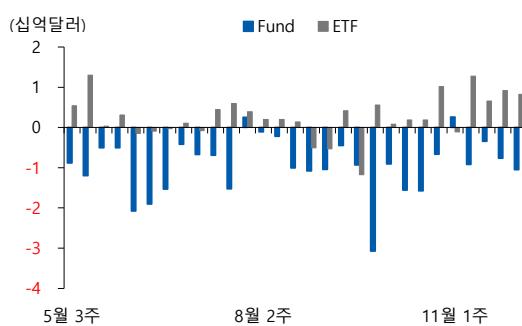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조금씩 호전되는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

- 연초 이후 미국 연준의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과 강달러는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의 투자 심리 위축시킴.
- 9월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약해지면서,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의 투자 심리 호전.
- 11월에는 신흥국주식펀드와 ETF가 5주 연속 순유입 기록. 아시아(일본제외) 주식펀드와 ETF의 자금 유출 규모도 감소 추세.

신흥국주식ETF는 1달째 순유입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국내주식 ETF로 자금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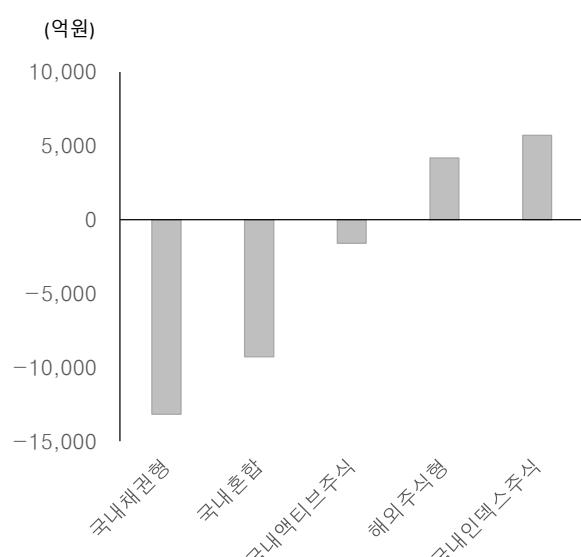
지난 3개월간 국내인덱스주식(ETF포함)과 해외주식형펀드(ETF포함)로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채권형펀드는 단기채권펀드를 중심으로 환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종합채권 유형의 펀드는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액티브펀드는 일반형, 중소형, 배당형, 테마형 등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유형 전체적으로도 설정액이 순감소하였다. 단, 액티브주식섹터펀드는 기술주펀드에 대한 기대로 소폭 순유입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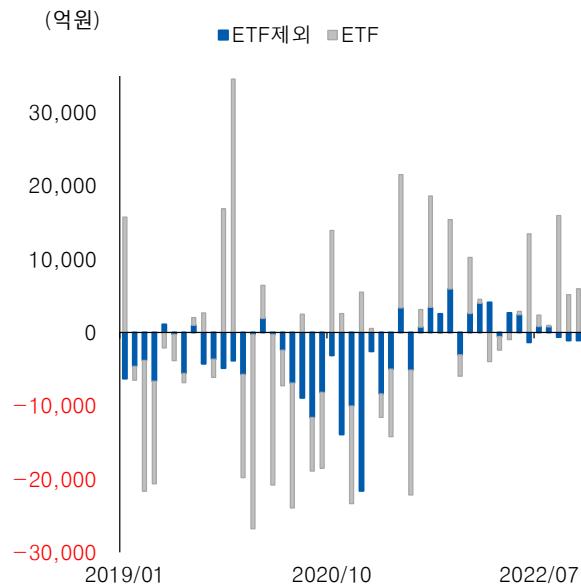
주식시장의 부진으로 국내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은 최근 3개월 -1.68%, 연초 이후로는 -23.22%의 성과를 시현하고 있다. 상반기 손실을 기록했던 채권펀드는 최근 3개월 0.25%, 6개월 0.12%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해외주식형펀드는 북미주식형과 중국주식형 등의 부진으로 3개월 수익률 -5.56%를 기록하였다. 해외주식형 유형 중에서는 소재섹터, 헬스케어터, 금융섹터, 유럽주식펀드 등이 플러스 수익률을 보였다.

[차트1] 최근 3개월 동안 국내인덱스주식펀드로 자금 유입



[차트2] 국내주식 ETF로의 자금 유입은 이어짐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조금씩 호전되는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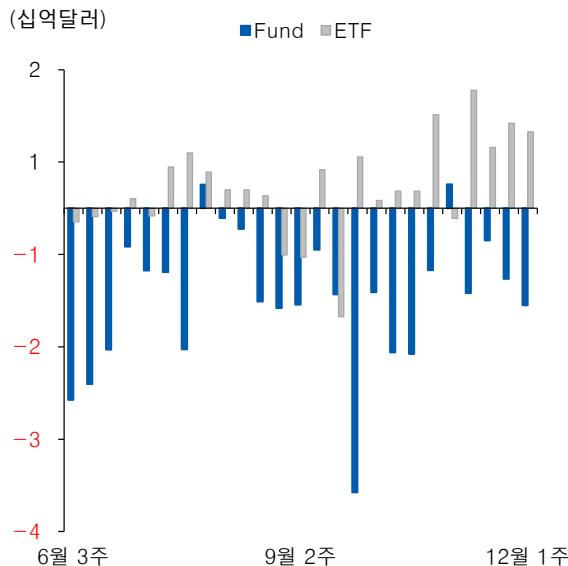
연초 이후 미국 연준의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과 강달러 현상은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력이 큰 신흥국주식펀드와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 등은 순유출 규모가 커졌다.

9월부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약해지면서, 신흥국주식ETF로는 자금 유입이 재개되고 있다. 신흥국주식펀드의 자금 유출 규모도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11월에는 신흥국주식펀드와 ETF가 5주 연속 순유입을 기록하였다.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는 6월 이후 25주째 순유출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9월 이후 순유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아시아(일본제외) 주식 ETF의 순유출이 거의 잦아든 것도 긍정적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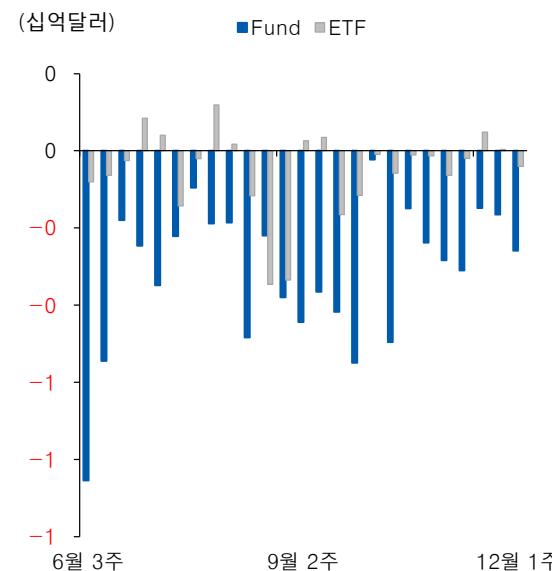
미국주식펀드는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으나, 미국 주식 ETF는 9~11월 순유입을 이어갔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받는 유럽 주식펀드는 연초 이후의 순유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차트3] 신흥국주식ETF는 1달째 순유입 .



자료: Morningstar,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아시아(일본제외)주식펀드와 ETF의 순유출 규모는 감소 추세 .



자료: Morningstar, 유안티증권 리서치센터